



한인회장 인사

2013년 계사년 새해에 교민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모든 일과 가정, 사업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후원해 주시고 많은 관심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래는 지난 12월 22일 13, 14대 임기동안에 여러 분야에서 후원해 주시고 봉사해 주신 분들을 모시고 한인회장 초청 만찬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김두남 한인회장은 임기동안 행사때마다 수고해 주신 임원 여러분과 이사회 기타 모든 기관과 단체 교역자 협의회, 천주교회 및 '광야의 소리'를 통해 매달 한인회 소식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도움주신 감리교회와 김기천목사님, 한인 각 마켓과 식당, 후원자 여러분과 라스크루시스지역에서 많은 활동해 주신 조규자 부회장님과 김명주 이사님, 고문목사로 수고해 주신 노강국목사님(산타페, 로스알라모스)과 김의석목사님 이름없이 후원하신 모든 분들에 대해 일일이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분들의 수고가 아니었으면 뉴멕시코주 한인사회가 지역에서

-4페이지에서 계속

지역 주민과 함께 한 성탄의 밤

"화목"을 위해서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다. 이번 2012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알버커키에 사는 주민들의 화목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가 12월 23일 7시 30분에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에서 열렸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2012년 성탄 음악회"였다.

12월의 밤은 일찍 찾아온다. 칠혹 같은 어둠을 헤치면서 교회 가까이 다가서자 반짝거리는 불빛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주차장을 안내하는 손전등 불빛이었다. 주차장에는 이미 많은 차들이 와 있는 것 같았다. 안내원의 지시에 따라 차를 주차시키고 교회 안으로 들어섰다. 안내원이 친절하게 인사를 하면서 순서지를 나눠준다. 실내에는 형형색색의 풍선들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었다. 순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는 약간의 긴장감이 도는 듯했다.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끼리의 서먹함도 있었으리라.

-2페이지에서 계속

교회 의자에는 미리 자리잡은 한인들로 꽉 차 있었다.

광야의 소리는

매달 5일에 원고를 마감합니다.

원고나 기관 소식에 관한 기사를 보내시거나

광고를 요청하실 분은 마감 전까지

권구자 부장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도네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흑백: 1/8 페이지-\$20, 1/4 페이지-\$40

칼라: 1/8 페이지-\$35, 1/4 페이지-\$70,

1/2 페이지-\$200

담당Contact: 권구자 Kucha Choy 505-553-1009,

voiceofnm@gmail.com

편집위원: 이철수, 김채원, Joshua shin

§Voice in the Wilderness§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제15대 뉴멕시코주 한인회장 선거공고

2013년 1월 31일

제 15대 뉴멕시코주 한인 회장 선거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차기 회장직에 봉사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후보 등록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회장 입후보 자격

한인회에 등록되고 2012년 10월 31일까지 회비를 납부한 정 회원

2. 입후보자 등록 서류

(가) 입후보 등록서 1 통(한인회관비치, 웹사이트에서 내려받기)

(나) 정회원 5명 이상의 추천(등록서에 포함 되었음)

(다) 입후보자 등록비 3000불 (현금 또는 은행 보증 수표)

(라) 선거후 비당선인에게는 300 불을 제외한 등록비는 환불함

3. 등록 일시 및 장소

2월 1 일부터 16일 오후 3시까지

장소는 뉴멕시코주 한인회관 (우편으로도 접수 가능함)

4. 투표 일시 및 장소

일시: 2월 23일 오후3 시

장소: 한인회관 (정기 총회를 겸함)

5.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선거 관리 위원에게 문의 바랍니다.

선거 관리 위원

최 진: 전화번호 505-228-9062 (khanjc@aol.com)

손말례: 전화번호 505-280-4633 (malmije@gmail.com)

김준호: 전화번호 505-821-3561 (jhknm@q.com)

이경화: 전화번호 505-237-8688 (khlnm@comcast.net)

*지난 1월 26일 정기이사회 모임에서 15대 차기 회장 선거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13, 14대 한인회를 역동적으로 이끌어 온 김두남 회장이 오는 3월말을 끝으로 임기 마감이 됩니다. 따라서 한인회 이사회에서는 회칙에 따라 선거관리 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회기에 계속해서 한인회를 이끌어 갈 훌륭한 인재들이 한인회원들에 의해 추천되기를 바라고 추천된 분은 새로운 결단과 각오로 15대 회장선거 입후보에 등록하고 공정하게 투표가 이루어져서 한인회가 더욱 화합하고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15대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최진

이번 호에 실린 글

새로운 시즌 시작에 목사님 강혜숙 사모님 -----2

나그네에서 시정길(전남대학교 명예교수/작가)---3

한국학교 -----4

한국학교 교장 신사말 -----5

서버니회 소식 -----5

주님의 교회 소식 -----5

기막힌 수연 아니면 설리? 김준호 장로-----6

뉴멕시코 한인 상공인 소식-----6

천막교회에서 시작한 나의 하모니카 글 : 이경화 승

동경에서 순 소식 박신배 목사-----11

순서는 지역 사회에 있는 한인 단체장의 인사로 시작되었다. 한인회 민명희 부회장의 인사말이 있었고 이어 상공인회 김철 회장의 인사가 있었다. 2013년 신년에도 각 한인단체들이 서로 연합해서 주민들을 섬기는 귀한 단체가 되기를 기원한다.



뉴멕시코주 한인 목회자들의 축하송이 있었다. 일곱 분의 목사님들이 나와서 절묘한 화음으로 뉴멕시코 한인들의 평화를 기원하는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데서”를 불렀다. 이어 어린이들이 나와서 핸드벨을 들고 크리스마스 캐롤을 연주하였다. 음과 박자를 맞추어가면서 “고요한 밤”과 “기쁘다 구주 오셨다”를 귀엽게 연주해주었다.



남성과 여성의 목소리가 어울려서 부르는 혼성 사중창이 있었다. 혼성으로 이루어진 이 팀은 “What Child is This”와 “Do You Hear what I Hear”를 들려주었다. 이어 다섯 명의 여성들로 이루어진 중창이 있었다. 이들은 “Silent Night, Oh! Holy Night”를 불렀다. 웃으면서 노래를 부르는 이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주님의 교회에서는 연극을 준비했다. “No Room at the Inn”이란 제목으로 예수님의 탄생 때의 상황을 재현해서 보여주었다. 배우들은 모두 맡은 역할을 진지하게 보여주었다. 특히 예수께서 탄생하신 여관 집 딸의 역할이 매우 돋보였던 연극이었다. 이어 남성들만 나와서 불렀던 “Christmas Carol Medley” 또한 청중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았다. 남자들의 목소리만 아니라 피아노와 드럼 외에도 하모니카까지 곁들여서 경쾌한 크리스마스 캐롤들을 메들리로 들려주었다.



한미 침례교회에서는 목사님께서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낭송하면서 감동 깊은 예화를 소개해 주었다. 낭송하는 동안에 사모님과 딸이 함께 은은하게 피아노를 연주해주어서 낭송에 감동을 더해주었다. 이어서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바이올린, 첼로, 섹스폰, 드럼, 플룻을 들고 “Christmas Sing-A-Long”을 연주했다.

모든 악기를 맞추려면 꽤나 많은 연습을 한 것으로 보인다. 청중들에게 인기를 끈 것은 다음 곡 “Christmas in the Kitchen”이었다. 부엌에서 쓰는 도구들이 등장했다. 특이 어머니들이 이 도구들을 들고 연주에 참가했다. 어머니들은 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도구들을 두들겼다. 부엌 도구를 두들길 때 나오는 소리가 어린 아이들이 연주하는 악기들과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음악을 만들어냈다. 연주가 끝날 때에 큰 박수를 받았다. 이어서 강선희 김기천 목사의 이중창이 있었다.



깊은 음색을 지닌 색소폰 독주 또한 일품이었다. 강혜숙 사모님께서 피아노 반주와 함께 “You Raise Me”를 연주하였다. 이날 순서의 클라이맥스는 역시 성탄절 칸타타에 있었다. 이 칸타타는 John E. Boalt가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순서대로 곡으로 엮어놓은 노래를 이태희가 한글로 편곡한 것이다. 아홉 개의 곡들을 연속으로 불렀으며 중간에 낭독이 있었다. 이 많은 곡들을 틀린 곳이 없이 아름답게 화음을 이루어가며 때로는 애처롭게 때로는 힘차게 불렀다. 본래 여러 교회들이 연합해서 부르기로 했지만 숫자로 따지면 두 교회가 연합해서 구성된 성가대라고 한다.



모든 순서가 끝난 후에는 모두 친교실로 가서 감리교회에서 준비한 다과를 나누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각 교회들을 소개하는 순서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 천주교회에서 많이 참석하였다.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를 가득 채웠던 이번 음악회는 비교적 성공적이었다. 2013년도에는 더 많은 한인들이 함께하는 음악회를 기대해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넓은 장소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새로 오신 이준우 목사님 강혜숙 사모님

*교역자협의회 소속 이준우 목사님 소개합니다. 이준우 목사님은 한국 예장(통합) 목사로 근 40년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분으로서 지난 해 9월에 파님 가족이 살고 있는 이곳 알버커키로 이주 하셨습니다. 2월 11일부터 3월 20일까지 미얀마의 갈레이묘, 양곤, 그리고 다찌렉 이 세 곳에서 사명자성회(현지 목회자들을 말씀과 기도로 훈련시키는)를 인도하십니다.

사진은 뉴멕시코 교역자협의회 정기모임에서 선교지로 떠나시기 전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시는 모습



-에 서 이-

나그네쥐

이정길(전남대학교 명예교수/작가)

레밍 lemming은 북극과 그 주변의 추운 곳에서 사는 동물이다. 생쥐와 비슷한 작은 설치류로 몸길이 8 ~ 15센티미터에 꼬리 길이는 약 1.5센티미터, 무게는 30 ~ 110그램이다. 툰드라, 삼림지대, 늪지대, 목초지 등 습한 곳에서 주로 풀잎이나 새싹을 먹고 살며, 뿌리와 알뿌리를 먹기도 한다. 족제비, 여우, 올빼미, 늑대의 먹이 감이지만 5주마다 평균 8마리의 새끼를 낳는 강한 번식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수가 3 ~ 4년을 주기로 크게 불어난다. 수가 불어남에 따라 먹이가 부족해지면 산지사방으로 흘어져서 먹이를 찾아 다니기 때문에 ‘나그네쥐’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동할 때면 나그네쥐는 집단을 이루어 한 방향으로만 나아가는 습성을 지니고 있다. 떼를 지어 먹이를 찾아 다니다가 어느 날 앞에 있는 녀석들이 갑자기 뛰기 시작하면 뒤에 있던 녀석들도 덩달아 뛴다. 뒤에서 맹렬하게 쫓아오는 놈들의 기세가 두려워 앞의 쥐들은 더 힘껏 달리게 되고, 이에 뒤질세라 뒤의 쥐들 역시 온 힘을 다해서 뛴다. 이 황당한 질주는 절벽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곳에 이르러서야 끝을 맺는다. 일제히 절벽에서 뛰어내려 바닷물에 빠져 죽는 것이다. 이 광경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은 나그네쥐가 무리를 지어 자살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레밍의 이런 행태는 수가 주기적으로 불어나면 자연서식처가 제공해주지 못하는 먹이나 피난처를 찾아 사방으로 흘어지는 다른 설치류의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들이 무리 지어 죽는 실체적인 이유는 시력이 형편없이 나빠서 쉽게 건널 수 있는 작은 강과 익사할 것이 너무나 뻔한, 빙하가 만든 북유럽해안의 육지 깊숙이 들어간 좁고 긴 만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다. 그들의 생태는 맹목적으로 어떤 집단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속어로 ‘레밍’이라는 말이 사용되며 만들었다.

지난 2006년이던가, 경상북도 상주 시민운동장에서는 콘서트가 열리게 되어 있었다. 계절도 좋은 5월에 있는 축제를 즐기려고 모여든 3만의 인파가 문이 열리자 앞다투어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밀치락달치락하는 바람에 난장판이 되어 11명이 깔려 숨지고 수십 명이 부상당한 참사가 벌어졌다. 천재지변이 아닌 사람이 저지른 재난이어서 분노할 일이었다. 그런데 사고의 원인을 참으로 명쾌하게 밝혀 알려준 언론의 행태가 또 사람들의 분노를 샀다. 하나같이 시, 경찰, 행사 대행업체, 방송사 등 모든 관련기관의 소홀한 행사준비로 발생한 인재였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그날 운동장 바로 옆이 집이어서 상황을 잘 지켜볼 수 있었다는 한 여고생이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 “가장 큰 원인은 이 기적인 팬들과 일부 시민들이 질서를 지키지 않았던 것에 있다고 봅니다. 극성 팬들은 앞 자리를...” 이 참사는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했다. 먼저 시민들이 사회의 기본질서를 지켰더라면 이런 사고는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생명의 존엄성을 조금이라도 인식한 사람들이었더라면 열한 명이나 깔려 죽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음으로 세상 사람을 깨우쳐 인도할 만한 기관이라서 비유적으로 사회의 목탁이라 부르는 언론의 행태는 어땠는가?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당시 사람들의 행위는 자신들이 스스로 반성할 줄 알고 들추지 않았는지 모를 일이었다. 그러나 만에 일이라도 여고생이 지적한 것을 언론이 몰랐다면 그건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앵무새처럼 다른 언론의 말을 뇌었다거나,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매너리즘에 빠져 똑같은 결론을 내렸다면 그건 더 심각한 일이다 싶었다. 이런 참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생할 것만 같아 걱정되었다.

운동장에 먼저 들어가려고 난장판을 만든 구경꾼들과 뉴스를 먼

알버커키 한인 천주교 공동체 (Albuquerque)

민명희 스텔라 회장(505-652-4627)

§월모임: 매월 세 번째주 일요일 오후 6:00 pm

§장소: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532 Vermont St NE, Albuquerque, NM 87110

§소공동체, 성령기도회, 성서입문: 매주 월, 수, 금

§http://cafe.daum.net/abq-catholic

뉴멕시코 성결교회 (Albuquerque)

전종철 목사

주일예배 §시간: 오후 1:00 pm

새벽기도 §시간: 5:30 am (매일)

§장소: 2801 Lomas Blvd NE, Albuquerque, NM 87106

(505) 238-3551

로스 알라모스/산타페 교회 (Los Alamos, Santa Fe)

노강국 목사

주일예배 1부 §시간: 11:30 am

§장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주일예배 2부 §시간: 2:00 pm

§장소: Westminster 장로교회 (Sante Fe)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

매달 넷째 주일은 연합예배입니다.

§시간: 11:30 am

§장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拉斯 크루세스 침례교회 (Las Cruces)

박종인 목사

주일예배 §시간: 11:00 am

§장소: 1441 East Mesa, Las Cruces, NM 88011

목요일 6:00 pm 기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 (Albuquerque)

김의석 목사

주일예배 §시간: 오후 2:00 pm

새벽기도회 §6:00 am (월~토)

성경공부 §매주 월요일 10:30 am (한인회관)

§장소: 12120 Copper Ave., NE, Albuquerque, NM 87123

(505) 903-2297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Albuquerque)

김기천 목사

주일예배 (Worship) §11:00 am (Sunday)

어린이 영어예배 (Youth Service) §11:00 am (Sunday)

수요예배 §매주 수요일 7:30 pm

새벽기도회 §5:30 am (Tue-Fri) §6:00 am (Sat.)

장소: 601 Tyler Rd., NE, Albuquerque, NM 87113

전화 505-803-7716

화밍تون 한미 침례교회 (Farmington)

신경일 목사

주일예배

§시간: 12:00 am (한국어 예배) 1:00 pm (Indian 영어예배)

§장소: San Juan Baptist Assoc.

1010 Ridgeway pl., Farmington NM 87401 505-453-5461

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 (Albuquerque)

윤성렬 목사

주일예배 §시간: 오전 9:00 am §시간: 오전 11:00 am

주일학교 §시간: 오전 11:00 am

새벽기도회 §5:45 am (Tue-Fri)

성경공부 및 기도회 §매주 목요일 1:00 pm (교회에서)

§장소: 3315 Tower Rd, SW, Albuquerque, NM

(505) 331-9584

저 전달하겠다고 내용을 부실하게 처리한 언론이 내게는 별반 다르지 않아 보였다. 구경꾼이나 언론이나 모두가 경쟁에만 몰두한 나머지 정작 왜 이겨야 하는지를 망각하고 죽음의 질주를 하는 레밍의 행태와 너무 비슷해 보였다. 우리 모두가 나그네죄들처럼 광란의 질주를 하고 있구나 싶었다. 나는 그때 문득 거기서 내가 완전히 자유로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날로 치열해져 가는 경쟁 시대에 살면서, 외계의 모든 구속에서 벗어나 인간의 본성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는지 의문이었다.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채 그저 살다가 가는 대부분의 우리 인간들이 죽음의 질주로 생을 마감하는 레밍과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도대체 삶이란 무엇인가? 태어나서 정해진 운명대로 사는 것이 삶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저 살아지는 것인지 자기의 뜻대로 살 수 없는 것이라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삶은 분명 그 이상일 터. 밝혀내야 할 신비도 있고, 풀어야 할 의문도 있으며, 찾아야 할 길도 있는 것이 삶 아니던가. 삶에 의미를 두지 않고, 삶에 대해 고민해보지도 않으며,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구하려는 노력도 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삶의 의미는 저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 그리고 여기에 충실히 하며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는 말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이다.

-1페이지에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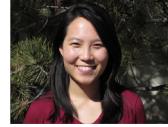
활발히 일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

특별히 수고하신 다섯 분들께는 La 신영성 총영사가 수여하는 감사장을 이정길교수, 김기천목사, 이옥주 홍보대사, 임낸시 부회장, 박연복 봉사부장님에게 수여하였고, 서남부 연합회 국승구 회장이 수여하는 감사장은 정지예 한국학교 교사, 이은주 기획부장, 김두남회장

에게 수여되었습니다.



한국학교



한국학교가 1월 19일 토요일부터 개강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번 학기에 새로이 임명된 신미경 교장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미경교장

2004. 9~2005. 5 캐나다 King's College University/University of Western Ontario 교환학생

2001. 3~2006. 2 가톨릭 대학교 국제학부 국제관계학과 졸업 (부총장상 수상-전공 수석)

2010. 1~현재 University of New Mexico, LLSS (Language, Literacy, and Sociocultural Studies) department, TESOL (Teaching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 석사 과정 재학

2006. 9~2009. 9 서울 강남 리딩타운 초, 중등부 영어 강사

2011. 2~2011. 5 뉴멕시코 San Jose Elementary School, reading/writing tutor

2011. 9~2012. 5 University of New Mexico, LLSS-Graduate Student Association secretary

2011. 8~현재 뉴멕시코 한국 학교 교사

2012. 1~2012. 5 UNM CELAC (Center for English Language and American Cultures) ESL 강사

2012 제 1회 뉴멕시코 한인 상공회 대학원생 장학생

2012. 5 현재 알버커키 주님의 교회 주일 예배 설교 통역



김영신 부동산



Associate Broker
7001 Prospect NE, Ste. 200
Albuquerque, NM 87110
yongfre@yahoo.com

505.321.7695 (cell)
505.888.1700 (office)
505.888.9650 (office fax)



Japanese Kitchen Steak House

Indian School Rd.
American Pkwy.
Loyola Blvd.
Marriott Dr.
I-40
American Pkwy.

Japanese Kitchen 제페니즈 키친

일본인이 경영하는 일식 정통집
일본정식(5코스:30분, 6코스:40분,
8코스:50분)
모듬정식(렌또), 해물우동, 뒤김우동,
닭고기정식, 고등어정식, 봉지정식, 연어정식,
그외 일본 정통음식
(대만)야끼전문, 고기 종류와 해물 의 다수

Phone(505) 884-8937
6521 Americas Parkway, NE, ABQ

**Japanese Kitchen
Steak House**

6521 Americas Parkway NE
Albuquerque NM, 87110

Phone: 884.8937
Fax: 884.8938

www.japanesekitchen.com

한국학교장 인사말

안녕하세요. 뉴멕시코 한국학교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2013년, 벌써 그 첫 달이 지나가고 이제 어느덧 따스한 봄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네요. 저는 올 봄 학기를 시작으로 뉴멕시코 한국학교 교장으로 임명된 신미경입니다. 알버커키 교민 여러분께 한국학교 교장으로서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 한국학교의 교육방침이나 운영에 대한 어떤 새로운 포부나 다짐을 표현 할 수 있을까 하고 한동안 고민을 했는데요, 결국 그 무엇보다도 여러 학부모님들을 비롯한 교민 여러분들께 제가 어떤 마음으로 현재의 제 자리에서 있는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2009년 가을에 알버커키로 이주하게 되면서 이 곳에서 첫 미국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알버커키가 곧 미국입니다. 이 미국 생활 첫 달 중에 저에게 가장 인상깊게 남아있는 기억은 고향인 한국과 내 나라 사람들이 너무나도 그리워 뉴멕시코 한인회관을 찾았던 일입니다. 그 날이 마침 수요일로 어버이회 모임이 있는 날이었고, 여러 어르신들의 환영 속에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어를 말하는 즐거움 가운데 정말 감격적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 한국에 계신 제 조부모님 연배의 한 어르신의 생일이었던 지라, 식사를 거의 마쳐 갈 무렵에 어르신의 딸이 캐 과 꽃다발을 들고 잠시 한인회관에 들렀습니다. 30대 쯤으로 보였던 그 딸은 한국어를 전혀 말하거나 쓰지 못했고, 그래서 어머니께 드리는 생일카드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영어를 그대로 한국어로 번역해 낸 생일 축하 메세지가 프린트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딸이 원래 하고자 했던 사랑을 담은 멋들어진 생일 축하 문장이 아니라 한글 자음, 모음의 조악한 조합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딸에게 영어로 뜻을 물은 다음 다시 어르신께 그 뜻을 한국어로 통역해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 일 이후에도 이 곳 미국에서 만난 대다수의 한국 펫줄을 가진 아이들과 청년들이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거나, 한국어를 배워야 하는 이유 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는 마음 아픈 현실을 겪으면서 왜 미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한인들이 자녀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는지에 대해 많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우리 한인들뿐만이 아니라, 미국 내 모든 소수 민족들이 자신들의 모국어를 잊게 되는 현실 때문에 신음하고 있다는 것과, 이는 실제 미국 내 언어교육학과 사회문화학계내에서도 관련된 많은 비판적인 연구를 통해 이미 문제로 인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 의식과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저희 한국학교는 앞으로 한인 공동체를 비롯해 한국학교 학부모님들,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과 연합해서 양질의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고, 학생들의 한국어 교육을 보다 공고히 하고 체계를 갖추는데 매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교민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더불어 귀한 자녀들을 꼭 한국학교에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일과 시간에 관계없이 한국학교에 관심있는 분들은 문의해 주시고 새롭게 변화될 한국학교의 새 소식 업뎃에 많은 관심 기울여 주십시오.

문의: 한국학교 505-271-1777, 신미경교장-505-453-9015



위쪽 두 사진(1)새학기 준비를 위한 교사 미팅. (2) 지난 1월 25일 (금)한국학교의 새학기와 함께 새롭게 임명된 신미경 교장 선생의 기획하에 이루어진 국어국문학과 전공 이은주씨의 한국학교 교사 특강이 있었다. 경험을

통한 본인의 티칭방법과 여러 이론적인 과정을 배제한 가장 빠른 한글 습득과 말하기 쓰기, 읽기 그외 한국학교 운영에 대한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함께 나누었다. 이 이후에도 다양한 취지의 특강 및 세미나가 전문가들에 의해 계속 이루어 질 것이다.

위쪽 사진: 10년동안 한국학교 교사로 봉사하신 정지예선생에게 수여된 감사장



한국학교 알림

한국학교 교사 수련회: 3월 2일(토)에 미주 한국학교 연합회에서 파견되는 4명의 강사를 모시고 교사 수련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어버이회소식

- 1월 9일부터 어버이회 수요 정기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아 아리랑에서 떡국으로 대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2월 9일 구정에는 민명희 부회장님께서 점심식사를 후원합니다.
- 3월 20일 수요일 어버이 모임에서 대보름잔치가 성대하게 열릴 예정입니다. 정풍자, 이명교, 정종문, 정마리아, 최귀분님께서 쌀 50포대를 후원해 주시고 각 한인마켓에서는 오곡밥과 나물을 후원해 주십니다. 많은 어버이분들 참석해 주시고 즐거운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 소식

*weekly Schedule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6am

*UNM(The University of New Mexico) Campus Mission Every Tues.

*성경공부매주 목요일 10:00am @ Church

*Homeless Mission Every Sat. 7:30am@ Coronado Park (2nd street)

*English Bible conversation group for young adults and UNM students Every Sun. 1pm @ church.

스시바를 매매 합니다

**Los Alamos 의 Smith 마켓 안에있는
성업중인 스시바를
타주 이사 관계로 매매합니다.
가격 6만불**

연락처: 505-506 7756

Susan Oh (수잔 오)

E-mail: susanmission@gmail.com

기막힌 우연 아니면 섭리 ?



김준호 장로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히브리서 11장 1-3절).

우주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된 것을 다시 조사하면서 진화론을 제창한 사람이 있다. 하나님과 사람이 대결하는 셈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현대인들은 진화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하여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 내가 진화론의 맹점들을 지적한 적이 있었다(광야의 소리 2009년 11월호 참고).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되었는데도 군소리가 많다. 파스칼의 말을 빌리면 “과학은 먼저 알아야 믿을 수 있고 신앙은 먼저 믿어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되었으나 과학이 아닐 수 있고 단지 가설에 지나지 않는 데도 학교에서는 과학인 양 가르친다니 이해가 안 된다. 이 파스칼의 말을 뒷받침 하는 말이 있다. Faith begins where possibilities end. If it is humanly possible, there is no glory for God in it. 그러니까 파스칼의 말을 더 풀이한다면 먼저 불가능한 것을 믿어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내가 하려는 간증들은 믿는 사람이 보면 하나님인 인도하셨다고 할 것이고 불신자의 입장에서 보면 기막힌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다. 독자들의 판단에 맡긴다. 내가 해주에 살던 어린 시절에는 교회 나가는 애들을 무척이나 놀리고 구박을 주었었다. 그러나 나의 믿음은 훨씬 후에 자라기 시작했다. 그 이야기는 여기서 안 할 것이다. 일사 후퇴때 우리는 남쪽으로 피난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 피난살이할 때의 일이다. 청단 남쪽에 학남리란 동네에서 살고 있을 때인데 남북이 휴전이 되어 남한 땅이던 피난처가 북한이 지배하게 되었고 몇마일 떨어진 용매도란 섬은 남한이 장악하게 되었다. 이 섬은 썰물이 되면 육지와 걸어서 왕래할 수 있었고 밀물일 때는 배로만 육지와 왕래하는 곳이었다. 그런데 우리가족은 다시 북한의 영역에 사는 고통을 또 감수해야 했다. 우리는 월Marked Family로 낙인이 찍혀서 나날을 전전긍긍하며 살았다. 그런데 하루는 이상한 편지가 용매도에서 안내원을 통해서 우리한테 전달되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없는데 김준호를 찾는다는 것이다. 나는 당장 답장을 써서 당신이 누구인데 나를 찾느냐고 물었다. 그후 “나는 네 작은 형이다”라고 답장이 왔다. 그때 작은 형님은 큰 형님과 누님 세 분이 젊은 나이어서 무조건 남쪽으로 우리보다 먼저 출발했었다. 우리들은 작은 형님이 용매도에 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었다. 하여간 작은 형님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용매도로 탈출하는 전략을 짰었다. 작은 형님은 남하해서 유엔 경찰에 지원했고 큰 형님은 유엔 경찰 중대장으로 일했다고 한다. 그래서 작은 형님을 첨보원으로 용매도로 파견했다고 했다. 안내원은 돈을 받고 사람들을 용매도로 탈출시키곤 하였다.

그런데 나와 몇몇 동네 애들이 인민군에게 잡혀서 어디론가 데려가는 도중 점심때가 되어 어떤 집에서 점심을 내라고 하여 잡힌 우리들은 그 집 마당에 있었고 그 집의 주인은 우리 친척집이어서 나의 아버지가 그 주인과 수군수군하더니 극진한(?) 점심을 차리고 소대장을 안방으로 모셔 앉히고 막걸리도 따라주며 환심을 산 후 아버지가 그 소대장에게 부탁해서 아버지의 민첩한 수

법으로 나는 풀려났고 그 후로는 그들이 토벌하려 온다고 연락이 오면 가까운 야산에 만든 방공호(?)로 피신해서 그 안에 내 또래되는 아이들과 함께 들어가 몇 시간씩 지내곤 하였다. 이 방공호 생활도 하루 이틀이 아닌 허구 많은 날을 보냈기 때문에 작은 형님있는 곳으로 탈출하기로 결정하고 안내원의 지시를 따랐다. 바닷물이 완전히 썰물이 되는 그믐날 아주 깜깜한 야밤에 부모님을 떠나 조그마한 배를 타고 저수지를 건넜다. 그때까지 보초병들에게 들키지 않고 무사했다. 계속해서 용매도를 향해서 몇 시간 걸어왔을 때 안내원이 이제는 안전하니까 여기서 약 30분쯤 쉬고 가도된다고 하였다. 나는 지고 있던 배낭을 베개삼아 질적질적한 갯벌에서 잠이 들었다. 그런데 꿈에 작은 형님을 만난 것이다. 다시 일어나 꿈도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용매도를 향해 걸어갔었다. 동편에서 해가 훤히 뜨기 시작했다. 나의 고민은 어떻게 형님을 찾을까하는 것이었다. 한 가지 방법은 그 섬을 온통 뒤지는 방법밖에는 다른 묘안이 없었다. 그런데 섬에 거의 도착할 때였다. 몇몇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우리들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작은 형님이 나를 보고 “준호야!” 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극적인 상봉을 하게되어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한참 있다가 형님에게 물었다. “어떻게 내가 오는 것을 알았어요?” “야 말도 말아라. 어제 밤 꿈에 너를 보았단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 나왔다”는 것이다. “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구나”하고 나는 탄복했었다. 이 이야기를 우리 아들네 집에 가서 했더니 며느리가 말하기를 “Lord helped you, Harabugi”했다. 또 “You have so many chapters. Please record all for us”했다. 이 견디기 어려웠던 그 많은 사연들을 다시 생각하며 recording을 할 수 있을 런지 엄두가 안 난다. 전에도 말했듯이 이것은 Just By Chance(우연) 아니면 God's Providence(섭리)이다. 나는 우연이라고는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는다.

내가 처음으로 미국 땅을 밟고 유숙한 집은 Don Livinggood네 집이었다. Don은 작은 형님이 의정부에서 UN 경찰로 근무할 때 옆에 주둔해 있던 미군이었는데 나를 소개해주어서 Penpal로 편지를 주고받던 친구였다. 중학생 때인데 영어가 엉망이어서 내가 편지를 쓰면 Don은 꼭 답장을 쓰고 내 편지에다가 이럴 때는 이렇게 써야하고 잘못된 것을 고쳐서 자기 답장과 함께 보내주곤 하였다. 몇 년 동안 이렇게 우정을 나누다가 Don은 제대를 하고 미국으로 돌아오면서 자기 집 주소를 주었었다. 그는 Electronics technician이어서 나에게 전자공학 책도 보내주곤 하여 연락은 있었다. 내가 미국 올 때는 만났던 지가 8-9년이 넘었으므로 얼굴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 길이 없었다. 내가 LA 공항에 내릴 때 Don은 승객들 나오는 문 앞에서 크게 JOON-HO KIM이라는 Placard를 만들어 높이 들고 나를 맞이해주어서 곧장 알 수 있었고 Seal Beach에 있는 자기 어머니 집으로 안내하였다. 이것도 희한한 인



산타페 주간지 Santa Fe Reporter, 올해 Jan. 23-29호에
소개된 Chopstix Oriental Food 레스토랑
(주소: 238 N Guadalupe St., Santa Fe 전화, 820-2126)

연이었다. 나의 원래 목적지는 뉴욕이어서 Don 어머니 집에서 한 주일 지내고 뉴욕으로 출발하기로 했는데 유복형 씨(아현 성결교 회 성가대 지휘하던 분으로 유명한 바리톤 성악가며 씨벨리아의 이발사 등에 출연했던 분)와 전화 연락하면서 나의 계획을 말했더니 그 추운 New York으로 왜 가느냐고 여기서 다른 학교를 찾고 여기서 일도 하라고 권해서 결국은 LA에 주저앉게 되었다. 그래서 임동선 목사님 댁 윗층에 하숙하며 USC대학원 입학허가를 받게 되었다. 임 목사님은 한국 공군 군종감으로 일하실 때 아현 성결교회 성가대가 공군기지에 가끔 가서 찬양곡들을 불렀던 인연이 있었다. 유 선생님은 나를 임 목사님에게 소개해 주셔서 아주 순조롭게 자리를 잡게 되었다.

내가 TRW Semiconductor에 취직된 이야기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되어 간증하고자 한다. 나는 한국을 떠날 때 겨우 \$500불을 가지고 왔으니 어떻게 보면 대담하기도 하고 큰 모험을 했다고 본다. 그래서 절실히 job을 가져야 했었다. 그때는 이민법이 지금처럼 tight하지 않아서 많은 유학생들도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Job을 찾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나는 LA down town 근방을 쏟아내며 찾았으나 매번 허탕을 쳤다. 어떤 사람이 LA Airport 근방에 큰 회사들이 많다고 알려주어서 그곳을 뒤졌다. 여기저기 다니다가 마지막으로 TRW Semiconductor에 도착했다. Lobby에 들어가서 Receptionist에게 물었다. "I am looking for a job." 그 여자는 나에게 물었다. "What kind experience you have?" "Here is my resume." 그녀는 "Hold on" 하더니 누구에게 전화를 했다. 조금 있으니까 어느 Department manager(?)가 나와서 인사를 했다. "This is Wayne Shaw. Let's go to my office." Wayne은 내 이력서를 보면서 꼬치꼬치 묻기 시작했다. "당신이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트랜지스터를 만들었다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하라는 것이었다. 나는 P type silicon wafer 100 ohm-cm 와 N type silicon wafer 100 ohm-cm 두 종류를 썼고 우선 산소로 diffusion furnace 안에서 oxidation을 섭씨 1500도에서 했고 wafer spinner에다가 Photo resister를 발라서 박막을 만들어 bake해서 트랜지스터 패턴을 만들고 Oxidized SiO₂를 Etching하고 그 다음에 diffusion을 같은 온도에서 했다고 했다. 또 질문이 Junction두께를 얼마나 만들었는지 추정했느냐고 물었고 트랜지스터 action을 Oscilloscope로 확인했느냐고 했다. Wayne은 TRW에서 Microwave transistor를 생산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내가 헛소리를 하는지를 체크했던 것이다. 내가 했던 모든 연구 결과가 한국 전자공학학회지에 발표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그런 다음 질문이 내가 Microwave theory를 아느냐는 것이었다. 다행이도 나는 대학 4학년 때 그 과목을 체신부에 근무하시면서 강사로 공과대학에 나와 가르쳤던 정만영박사의 강의가 조금 생각이 나서 이것저것 설명할 수 있었다. Wayne은 "Very good"하고는 "Can you start working tomorrow?" 나는 기쁘기도 하고 고민이 꽉 생겼다. 자 이 일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나는 속으로 걸어서 여기까지 온 것을 말해야 하나 아니면 딴 것을 해결해야하니까 몇 주 여유를 달라고 할까 마음이 몹시 싱숭생숭했다. 내가 머뭇머뭇하다가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사실 차가 없어서 LA downtown에서 여기까지 걸어서 왔는데 시간을 몇 주 준다면 해결하겠다고 했다. "Wayne was shocked when I said that I came here on foot from near downtown LA. What did you say? Walk all the way? Oh my God" 했다. 잠시 아무 말이 없었다. 이것은 그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서 매우 놀라는 기색이었다. 그러더니 "I have an idea. Just wait." 하더니, Intercom으로 전 TRW에 방송을 했다. "This is Wayne. I want to hire one engineer but he does not have car yet. He lives near LA downtown. Any one can help him to come to work. Please come to my office." 그리

고 그는 계속해서 자기 project를 설명했다. 이 Department 직원들은 TRW가 Microwave transistor를 개발하고 크게 광고를 냈는데 2GHz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고 사용되는 실제 회로를 개발한다고 proposal을 내고 상당한 시간을 보냈는데 진전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니 네가 한번 네 실력을(?) 발휘해 보라는 것이다. 모든 것을 100% 도와준다는 것이다. 내가 갑자기 Principal researcher가 되었던 것이다.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도 잡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들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았다. 와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께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기도를 속으로 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한 엔지니어가 나타났다. "당신의 집이 어디지요?" "My house is at 926 Irolost." "Good!" 자기 집은 임 목사님 댁에서 서쪽으로 5block 쯤에 있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의 집 코너에 아침 7시 15분까지 가서 기다리겠습니다."라고 했다. 그래서 걸어 다니지 않아도 되는 행운을 갖게 되었다.

우리 과에서 개발하려는 증폭 회로는 2 GHz Strip line power amplifier였다. 그들이 그때까지 했던 것을 잘 조사해 보았더니 Tank circuit가 Input side와 Output side에 있는데 이것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달랐고 PC board의 capacitance가 있어서 그것이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몰라서 capacitor를 더 연결하므로 해서 Gain이 전부 물 새듯이 빠져나가는 것을 알게 되어 내가 다시 회로를 설계해서 실험을 했더니 조금씩 Output power를 내게 되었다. 그래서 strip line의 길이와 폭을 조정해서 2GHz에 맞도록 해보았다. 이번에는 내가 환성을 지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앰프가 동작하는 것이었다!!! 나는 Wayne 방으로 달려가서 말했다. "Amp works!" TRW가 갑자기 소란해졌다. 준호가 해냈는데. 우리 과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우리 개발실로 모여들었다. Wayne이 정말동작하나 검사하고 나서 나를 보면서 "YOU SAVE MY NECK!" 했다. Wayne에게는 큰 골치덩어리였던 것 같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 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더 친절하게 대해주었다. 내가 한국인으로 이런 어려운 과제를 풀 수 있었다니 다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나에게는 또 하나의 문제가 다가오고 있었다. 돈은 별기 때문에 체크북에 돈이 쌓여서 좋은 데 등록할 때가 되어가는 것이다. 이 Job이 좋아서 그만두기가 아깝고 말을 해야 하는데 꿩꿍거리며 혼자 고민하다가 막판에 Wayne 방으로 가서 나의 사정을 말했다. 나는 USC 대학원에 등록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Very good. Go ahead to register. When you get B or above, TRW pays your tuition." 이런 혜택이 TRW에 있었는지 전연 몰랐기 때문에 또 한번 나를 놀라게 했다. 그러면 내가 낮에 학교를 다녀야 하는데 어떻게 make up해야 하는가. "What you can do is come to work after school is over and then work until 7 pm and come to work on Saturday. Then I will approve your work as 40 hours/ week." 나는 이런 아슬아슬한 상황을 경험하며 복 받은 자로 살아 왔다.

그 다음은 등록하는 과정에서 또 가슴이 철렁하는 일이 생겼었다. 전공과목 3개를 등록하려고 Registry Office에 가서 서류를 냈더니 너는 처음으로 등록하는 외국학생이니까 영어 101과 102를 듣고 Pass해야 전공과목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하늘이 노래지는 것이었다. 이것은 USC 학교 정책이기 때문에 아무도 어길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다. 500불 가지고 온 사람을 영어공부하는 등록비로 몽땅 쓴다면 이건아니지요. 또 Crisis가왔다. 아주 참기 어려웠다. 그래도 마음을 가라 앉히고 Foreign Student Office Adviser를 찾아갔다. "I have a problem for registration." 그러면서 전공과목 등록을 못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래요? 당신 어느 학교에서 왔습니까?" "I came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Seoul Korea." "Good, You don't need English course. Give me that paper." 그러더니 영어 과목을

면제해 주어도 된다고 자기 싸인을 하고 다시 제출하라는 것이다. 휴----- 벌렁벌렁 뛰던 가슴이 점점 잔잔해졌다. 그래서 그 등록 서류를 내고 무난히 등록하고 나서 그 Adviser에게 고맙다고 인사를했다. 그랬더니 그 분의 말이 너의 학교에서 왔던 학생 하나가 간절하게 해결(?)해서 면제해 주었더니 전공과 목들을 전부 A학점을 받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전통이 세워진 것이라고 설명해주었다. 나는 누군지는 몰라도 선배 덕을 특히 보았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 이렇게 풀리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런 것들을 그저 우연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는 우리 연합감리교회의 성전 건축할 때의 일이다. 지금부터 12년 전 2000년에 교회 표어를 “성전 건축의 해”라고 정하고 모금 운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2001년에는 “꿈을 심는 교회”였다. 그 해 2월 11일 주일 예배에 내가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제목이 꿈을 심는 교회가 되려면 꿈을 가져야 되겠기에 성경에 나오는 여러 꿈 이야기를 하면서(요셉의 꿈, 바로의 꿈, 야곱의 꿈, 느부갓네살의 꿈) 느헤미야가 52일만에 많은 저항과 모략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재건해서 그의 꿈을 실천했던 것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었었다. 그때 우리들의 꿈은 두말할 것도 없이 성전이었다. 모금액이 상상외로 많이 모여서 이제는 시작할 수 있겠거니 하고 건축업자들을 물색했다. 건축비를 받아보니 모금액이 건축비보다 좀 작아서 대출을 해야 계산이 맞게 되어서 부득이 대출을 받아서 시작했었다. 이 힘든 일을 이경화 장로님이 책임을 맡고 또 여러 성도님들이 힘을 모아 잘 실행해서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었다. 우리들은 이 사업을 믿음으로 시작했고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되었다. 우리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여러분들이 우리 모금운동에 동참해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인도였다고 확신한다. 교육관 증축할 때도 같은 경험을 했고 새 목사관 구입할 때도 기막힌 경험을 하면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랑해주시고 예뻐해 주시는 든든한 뼈이 있어서 더없는 행복감에 잠기게 되었고 감사하는 마음이 샘물처럼 흘러나오고 있으니 누구와 이 기쁨을 나누랴! ! ! 방법이 있다. 수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시면 We can share that joy!

2013년 새해에 풍성한 복들 많이 받으세요.

뉴멕시코 한인 상공인 소식

아래와 같이 뉴멕시코 한인 상공회의소에서 지난 12월에 지역 교민을 위한 특별행사를 가졌다. 많은 교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한 한인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다. 한인회 살림보고 후에 노래자랑 등 재미있는 레크레이션으로 모두들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2012년 정기총회 및 제2회 상공인의 밤

일시: 2012년 12월 9일 (일요일) 오후 6시

장소: Sushi & Sake 505-797-8000
5901 Wyoming Blvd. NE, Albuquerque, NM 87101
(NW corner at Academy)

행사내용: 정기총회 / 장학금 수여식 / 상공인의 밤

김철 회장 (505-999-8222)
조한옥 부회장 (505-228-0393)
문상귀 사무총장 (505-991-8888)
차진주 대외협력부장 (505-412-5294) Los Alamos
현동철 사업기획부장 (505-975-6315)
한광윤 자치행정부장 (505-440-0750)
김경숙 사회복지부장 (505-228-5341) Santa Fe

천막교회에서 시작한 나의 하모니카

글 : 이경화

지난 2012년 12월23일 우리교회에서 주최한 성탄 음악회는 지역 주민을 위한, 지역 주민에 의해 만들어진 새로 시도해본 음악회였다. 많은 알버커키 지역 교민이 참여해주셨고 프로그램을 준비한 여러 그룹이 열심히 준비해주셔서 프로그램을 준비한 여러분이나 청중들 모두가 보람되고 좋은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다.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남성 중창을 준비하시던 집사님이 내 하모니카를 중창에 포함시키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셔서 나는 노래를 부르는 대신 하모니카를 크리스마스 메들리 중에 함께 불렀었다. 며칠 후 녹음된 음악회 실황을 인터넷 유튜브(YouTube)에 올리면서 생각을 해보니 내 하모니카와 나의 교회 생활이 거의 함께해 왔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내가 여러 사람 앞에서 처음 하모니카를 불었던 곳도 교회였는데 올해 마지막으로 불었던 곳도 교회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내가 처음 나간 교회는 한국전쟁 기간 중 대구에서 피난민 생활하고 있을 때 야전 천막으로 세워진 교회였다. 유엔군과 국군은 서울을 탈환하고 38선을 넘어 지금의 DMZ 선까지 밀고 올라갔지만 전선은 전진도 후퇴도 없는 교착상태에 빠져있었다. 서울서 피난내려 온 사람들은 서울에 돌아가도 잣더미가 된 서울에서 먹고 살 길이 막연할 뿐만 아니라 전쟁도 끝난 것이 아니어서 그때 시작되고 있던 휴전회담의 귀추를 기다리며 서울로 돌아가는 것을 미루고 피난민 생활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우리 가족은 원래 경기도 안산 근방에서 피난생활 하다가 대구에서 아동집지 “소년세계”를 출간하는 일을 아버지께서 맡게 되어 우리 가족은 대구로 내려가서 약 1년 동안 피난민 생활을 하게 되었다. 대구에는 서울 피난민 학생을 위한 대구 연합 중고등학교가 세워져 있었다. 교실은 야전천막 만한 크기의 판자집을 교실별로 여러 채지어서 쓰고 있었다. 비가 오면 여기저기서 비가 새는데다가 유리창도 없이 뻥뚫린 창에 책상도 없는 교실이었다. 의자와 칠판만 있을 뿐, 창고 같은 교실이었다. 그런데 교실 하나는 음악시간 전용으로 배정되어 있었고 그 교실에는 고물 피아노가 있었다. 음악 시간에는 피아노가 있는 이 교실로 이동해서 노래를 배웠다. 어느 날 음악시간이 되어 그 교실로 갔는데 음악 선생님이 새로 편입된 학생 아이를 데리고 들어 오셔서 소개를 하면서 이 학생은 피아노를 잘 치는 학생이니 이 학생의 연주를 들으면서 음악 감상시간으로 한 시간을 보내자고 하셨다. 그날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어머니께서는 나를 데리고 식품을 사기위해 대구 시장으로 가셨다. 대구 시내에 있는 시장 까지 걸어가는 동안 나는 어머니께 음악시간에 들은 피아노연주에서 감동받은 얘기를 했다. 시장에서 이것저것 찰과 반찬거리를 사고 나서 가라지 세일 물건 같은 여러 가지 물품을 팔고 있는 노점상을 지나게 되었다. 여러 가지 물건 중에 아마하 C장조 하모니카를 진열해 놓고 파는 노점상이 있었다. 하모니카를 보신 어머니는 걸음을 멈추시고 하모니카를 급히 손에 잡고는 “이거 얼마예요?” 하고 물어봄과 거의 동시에 하모니카를 입에 대고 본인이 작사한 “오빠생각” 노래를 불어제 치시는데 나는 그때까지도 우리 어머니가 하모니카를 부실줄 아는지를 몰랐었다. 결혼 전에 하모니카를 자주 불으셨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다. 어머니께서는 말씀하시길 “우리는 가난해서 너를 피아노 공부 같은 것은 시킬 수 없는 처지니 너는 이 하모니카나 배워 보거라” 하시면서 하모니카를 손에 쥐어 주셨다. 집에 와서는 어머니를 하모니카 선생으로 모시고 배우기 시작했다. 그런데 한 달도 안 되어서 그 당시 한국 최고의 하모니카 연주자를 만나

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 사건은 나의 하모니카와의 관계에서 아주 소중한 기회이기도 한데 이런 기회를 갖게 된 배경에는 아버지의 영향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버지께서는 그가 편집하셨던 '소년세계' 잡지에 부족한 지면을 채우느라고 토막 과학기사 같은 것을 입수해서 올리기도 하셨는데 한번은 면도날과 웃핀으로 만든 라디오 수신기 제작 기사를 잡지에 내셨다. 이차대전 당시 일본에 잡혀온 미군포로가 수용소에서 라디오 방송을 몰래 듣기 위해 면도날과 웃핀으로 고안해서 수신기를 만들어 미국방송을 들은 일이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알려진 것을 기사로 옮긴 것이었다. 이 기사는 라디오가 없는 나에게 큰 호기심을 불러 일으켰다. 대구시내에 있는 시장에 가서 군수품 노점상에서 헤드폰 리시버를 하나 사 가지고 와서 기사에서 읽은 대로 만들어 보니 대구방송국에서 나오는 KBS 방송이 모기소리만하지만 들을 수가 있었다. 안테나를 높이 치고 수신 채널의 선택도를 옮리려고 코일과 가변 콘덴서를 붙이고 다이오드 현상이 일어나는 면도칼과 웃핀 바늘 접촉 부분을 연필심이 좋다고 해서 연필심을 바늘 끝에 실로 감아 붙이는 등의 Redesign을 거듭해서 일종의 광석 수신기인 웃핀 라디오는 소리도 들을 만하게 크게 들렸다. 배터리도 필요 없는 이 무전력 수신기는 우리 집에 유일한 엔터테인먼트 가전품 노릇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어린이시간 방송을 듣는데 유창한 하모니카 연주가 대구방송국에서 보내는 전파를 타고 와서 내 웃핀 라디오 리시버를 용장하게 올렸다. 비제 작곡의 오페라 '칼멘'의 전주곡이었다. 오케스트라가 연주해야 할 이 전주곡을 하모니카 독주로 멋지게 불어는데 나는 내 귀를 의심할 정도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연주가 끝나면서 광고가 이어졌다. 연주자 이덕남 선생께서 하모니카 강습회를 대구 모 중학교에서 내주부터 시작한다는 광고였다. 어머니로부터 배운 하모니카 연주법에는 이미 한계를 느꼈던 나에게 이 소식은 절호의 찬스가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강습회 등록비가 문제였다. 하모니카 하나 얻은 것도 큰 빚을 진 기분인데 강습회비를 덜만한 형편이 아닌 피난민 생활에 말도 꺼낼 수 없는 지경이었다. 할 수 없이 친구를 꼬였다. 그때 내 하모니카 부는 것을 보고 함께 하모니카 동호인이 된 김태욱이란 친구가 있었다. 같은 피난민이긴 하지만 그의 부친께서는 고급장교 군인이어서인지 경제적 여유가 조금 있어 보였다. 그래서 그 친구를 꼬였다. "우리 같이 하모니카를 배우러 가자! 강습료를 좀 꾸어 다오! 천천히 갚을게!" 이 세 마디로 문제가 다 해결되어 한 달 동안 하모니카 강습을 친구와 함께 잘 받아서 기본적인 연주 주법을 다 배울 수 있었다. (이때 알게 된 김태욱 하모니카 친구는 지금까지도 우정이 이어져 한국 방문 때마다 꼭 만나야 될 친구로 남아 있다. 이덕남 하모니카 선생의 제자가 된 인연으로 몇 년 뒤에는 그분의 하모니카 독주곡 모음 악보집을 출판하는 일도 도와 드린 일이 있다. 손으로 악보를 베껴 써서 원고를 편집해 드렸었다.)

대구 남쪽 지역 대명동에 방 한 칸에 세 들어서 살았던 우리 집 남쪽에는 '영산못'이라고 불리는 작은 저수지가 있었고 둑을 지나서는 산이 시작되었는데 그 지역에는 피난민들이 판잣집을 많이 짓고 사는 달동네를 형성하고 있었다. 어느 젊은 전도사님으로 기억되는데 이분이 미군 부대를 드나들면서 애전 천막 하나를 얻어 오셔서 연못가 언덕위에 천막을 치고 교회를 세웠다. 피난민을 위한 천막교회! 여기에 나는 어머니와 함께 발을 디딘 것이다. 나 혼자의 의지가 아닌 반 이상 어머니의 의지와 기도에 의해 했으나 중 3때 여러 가지 영적으로 방황하기 쉬웠던 피난살이의 어려운 시절에 이 천막교회를 통해서 나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다. 그해에 성탄절 교회 행사였던 것 같다. 주일학교에서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나의 여동생이 마침 무용을 하게 되었는데 음악이 문제였다. 오르간 한대가 있기는 했으나 템포가 빠른 무용이 필요로 하는 노래를 칠 수 있는 반주자도 없었고 배터

리로 동작하는 녹음기라도 있으면 좋았지만 피난민이 모인 교회에 녹음기 가진 사람이 있을 리가 없는 가난했던 교회였다. 내 동생에게 무용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여선생님은 역시 피난 나온 신양이 좋은 가정의 학생으로 판자집 동네에 살고 있었고 주일학교에서 어린이들에게 성경과 음악, 무용을 지도하고 있었는데 내 여동생이 솔로 무용을 하게 되었으니 오빠 되는 내가 하모니카로 "붉은 날개(Red Wing)"라는 노래를 불어주어야 되겠다는 요청을 해 왔다. 마침 하모니카 강습회에서 배운 노래 중에 하나가 그 노래였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부를 수가 있었다. 리허설을 한주일 동안 매일 한 시간씩 하면서 동생에게도 체면 세우려고 열심히 했지만 미모의 이 여선생에게도 잘 보이려고 열심히 하모니카를 연습해 가지고 불었었다. 천막교회에서 있었던 주일학교 발표회에서 초등학교 학생이었던 내 여동생은 노래에 맞추어 멋지게 발레춤을 추었고 나는 하모니카 배운지 6개월 만에 여러 사람 앞에서 하모니카 연주자로 첫 데뷔(?)를 한 셈이 되었다. 그 후로는 천막교회 전도사님의 요청으로 이따금씩 예배시간에도 찬송가를 부르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1953년 휴전이 되었고 우리 가족은 11월 서울로 왔으나 집을 잃은 우리는 다시 셋방살이의 연속이었다. 용산중학교 2학년 때 6. 25가 터졌으니 3년5개월 만에 복학을 한 셈이 된다. 학교 건물은 미군이 쓰고 있어서 학교 내 빙터에 새로 지은 판자집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기였다. 그때 KBS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하모니카 연주를 듣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독주가 아닌 하모니카 합주였다. 고려 하모니카 합주단의 오펜바하 작곡의 "천국과 지옥" 서곡 연주가 방송되었다. 합주가 끝나면서 합주단원 양성을 위한 강습회가 YMCA에서 열린다고 광고를 했다. 하모니카로 합주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고 오케스트라나 할 수 있는 곡을 하모니카로 연주한 이 방송은 내게 큰 감동을 주었다. 개강 날짜에 종로 2가에 있는 YMCA를 찾아갔다. 옛날 3층 벽돌 건물이었던 YMCA건물은 불타버려서 잿더미가 되었다. 건물 가장자리 벽은 부분적으로 남아 울타리처럼 서 있었고 부서진 벽돌들을 정리해서 공터를 만든 자리에 판자집 사무실과 교실 한두 개가 지어져 있었다. 약 30명의 수강생이 등록을 했고 첫 강의 시간에는 성인들로 구성된 고려 하모니카 합주단이 신입 수강생을 환영하는 뜻으로 합주 연주를 시범으로 들려주었다. 합주단을 이끌어 가시는 최영진 선생께서 강의를 맡아 해주셨다. 가르치는 곡은 오늘날 스즈키(Suzuki) 바이올린 기초 과정에서 거쳐 가는 Menuet, Waltz 같은 쉬운 노래들이 대부분이었다. 강습회 1기 졸업생이 된 나는 곧 합주단에 가입이 되었고 바리톤 하모니카라는 중음에 해당되는 파트를 맞게 되었다. 남산에 있는 KBS 중앙방송국과 종로에 있었던 CBS 기독교 방송국의 어린이시간을 통해 하모니카 연주를 내 보내는 방송 프로그램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사진설명: 고려하모니카 합주단 기념사진 (1954, 레코드음반 녹음을 위해 부산에 내려 간 기간 중에 찍은 사진). 단원은 모두 대학생이거나 성인. 빽

빡 머리 고교생은 필자 한사람이었다.(앞에서 두 번째, 바른 쪽에서 두 번째가 필자. 앞줄 서있는 분은 이정식 단장, 그 다음이 최영진 선생) (자료출처: 대한하모니카 협회 홈페이지 www.harmonica.or.kr)

고려 하모니카 합주단의 활동으로는 방송국 출연 뿐만 아니라 전방부대 장병을 위한 위문 공연도 여러 번 했었고 서울 시내의 여러 중고등학교를 방문 연주하여 학교 내의 합주단 조직을 독려하는 활동도 수없이 많이 했다. 연주 때마다 학교 공부를 빼 먹는 일은 다반사였다. 용산 고등학교 뒤쪽 철조망 올타리의 개구멍 뚫린 곳은 내가 학교공부를 빼먹을 수 있게 해준 내가 애용했던 좋은 비밀 통로였다. YMCA에서의 하모니카 강습으로 인해서 많은 합주단 학생 단원이 생겼고 합주단원이 된 후에는 합주단으로서의 리허설이 계속되었는데 마땅한 연습 장소가 없다보니 지도하시는 최영진 선생님 댁에서 모이는 수밖에 없었다. 신당동에 있었던 선생님 댁에 10여명의 학생 단원이 좁은 방에 웅크리고 바닥에 앉아 연습을 하면 사모님은 학생들 뒷바라지 하시느라고 부엌을 드나드셨던 게 기억난다. 평양에서 하모니카 활동을 하시다가 8. 15해방된 후 내려오신 최영진 선생은 교회에서는 장로님이시기도 했다. 크리스마스 전야에는 학생들을 데리고 하모니카 케틀링을 하기도 했다. 그분이 다니시는 신당동 지역에 사는 교인 가정을 방문하며 대문 앞에서 크리스마스 케틀링 노래를 하모니카로 부르면 대부분의 교인들은 우리를 집안에 불러드려서 뜨거운 차를 대접하기도 하고 미국의 할로윈 때 다과를 주듯이 우리에게 다과를 주는 집도 있었다. 단원중의 한 친구는 아예 큼직한 베개 커버를 들고 다니며 다과를 모아 한보따리 지고 다니는 일을 전담하기도 했다. 밤 기온이 너무 추워서 입김이 들어간 하모니카가 얼어버리면 소리를 낼 수 없게 되므로 하모니카가 얼지 않도록 품속에 넣고 눈길을 걸어야 했던 추억이 잊혀지지 않는다.

합주단의 가장 큰 발표회는 내가 공대 3학년 재학 때 1958년 3월 시공관에서 있었던 제1회 하모니카 음악 발표회였다. 슈벨트의 '미완성 교향곡', 베르디의 '바그다드의 추장' 서곡, 비제의 '칼멘' 서곡이 일부순서에서 연주되었는데 발표 장소인 시공관은 그 당시 서울에서 가장 큰 연주회당이었다. 지금의 명동 예술극장이다. 이때 나는 독주자이셨던 이덕남 선생과 함께 제일하모니카파트에서 연주했다. 지휘는 역시 평양에서부터 하모니카 합주단 활동을 해오셨던 이정식 선생이었고 연주회를 가질 수 있게 지원해 주신 분은 그때 체신부 차관이셨던 조응천 공학박사였다. 조박사님은 8. 15전에 평양에서도 하모니카 활동을 하셨고 서울에서 차관으로 계시면서 초대 대한 하모니카 협회 회장이 되셨다. 합주단 단원으로 있는 동안 나의 고등학교와 대학생활 속에서의 내 하모니카는 늘 나의 동반자가 되었고 하모니카를 부는 장소도 다양했다. 서울 공대는 경기도 고양군에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이 기차 통학을 했다. 기차 속에서 친구들의 요청에 따라 하모니카를 분 적도 수 없이 많았다. 삼각산, 불암산 같은 곳에 친구들과 등산을 하면 하모니카는 필수품이었다.



1958년 시공관에서 제 1회 하모니카발표회 연주. 앞줄 오른쪽 끝: 최영진

선생. 앞줄 왼쪽 끝: 이덕남 선생. 그 다음이 필자. (자료출처: 대한하모니카 협회 홈페이지 www.harmonica.or.kr)

휴전선 근방에 있는 어느 천막 교회에 가서 한-미 군인과 지역 한인교인을 위해 찬송가도 두어 번 불었다. 학보병으로 군에 입대하면서 내 하모니카도 함께 입대했다. 논산훈련소 연병장에서 300명의 장병 앞에서 휴식 시간에 칼멘 오페라의 전주곡을 불기도 했고 부산 조병창에서 군복무 시에는 부산 방송국이 부대 안에 와서 개최한 노래 자랑 실황 중에 특별 연주로 하모니카 독주를 하여 방송을 타기도 했다.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했을 1961년에 대한하모니카협회에서는 세계적인 하모니카 연주자의 한사람인 존 세바스찬(John Sebastian Sr.)이란 분을 초청하여 독주회를 공보처 후원으로 가셨는데 이 연주회를 통해서 하모니카 음악의 새로운 면을 접하게 되었다. 피아노 반주로 연주하는 그의 레퍼토리 중에서 에네스쿠의 '루마니아의 광시곡 제1번'은 가장 큰 감명을 내게 주었다. 이분의 방한 기간 중 또 하나의 사업으로 대한 하모니카협회 주최, KBS 후원으로 전국하모니카 경연대회를 처음 가지게 되었고 심사위원으로 존 세바스찬을 모시고 합주단의 최영진 선생, 외부 인사로 김희조 선생과 KBS 음악과장이 함께 심사위원이 되어 남산에 있는 KBS 공개홀에서 경연대회가 개최되었다. 합주단의 여러분의 권유로 말미암아 나는 이 경연대회에 나가게 되었는데 그 결과 의외로 1등의 영예를 얻었다. 그때 연주한 곡목은 웨버 작곡의 '마탄의 사수'의 서곡을 간추려서 편곡한 전주곡이었는데 찬송가에 있는 '내 주여 뜻대로'로 시작되어 서곡의 경쾌한 3/4박자의 왈츠부분을 거쳐서 '사냥꾼의 합창'으로 매듭짓는 곡이었다. KBS 공개방송실에서 시상식이 있던 날 시상식에 이어 3등, 2등, 1등 차례로 연주를 해서 녹음한 것을 뒤에 방송으로 내보내게 되어 있었다. 내 연주 차례를 기다리며 무대 뒤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내 차례가 가까워서 하모니카를 최종 점검을 하는데 하모니카의 음 하나가 침이 들어간 탓으로 소리가 나질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고 당황하게 되었다. 그 때 옆에 있던 3등에 입상한 여고생이 자기 하모니카로 대신 불라고 내어 주었다. 하모니카는 입에 대는 악기여서 빌려주고 받는 악기가 아니었지만 곧 무대로 나가야 되는 위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여학생의 호의를 받고 그의 하모니카를 들고 무대에 나가 연주를 한 것이다. 이 여학생의 이름을 기억 못하는 게 또 한번 더 실수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시상식 때 대학 친구들이 여럿 참석했다. KBS 홀에서 나오자 나를 끌고 친구들은 신세계 백화점 지하실 맥주홀로 갔다. 한 턱 내야 된다는(지금 말로는 쏟다고 해야겠지만) 그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것은 당연지사였다. 우리가 홀 안에 들어서는데 귀에 익은 노래가 홀 안에 백그라운드 음악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또 하나의 우연의 일치라고 해야 할지? KBS에서 연주했던 나의 노래가 막 방송으로 나오는 순간이었다. 홀에서는 보통 레코드 음반을 틀어놓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그날따라 KBS 라디오를 마치 우리가 들어오는 것을 미리 기다렸다는 듯이 틀어 놓았던 것이다. 친구들은 이 곡이 끝나기 전에 축배를 들어야 된다고 주문을 서둘렀던 게 생각난다. 상금으로 받은 돈의 절반은 한턱 내느라고 써 버리고 그래도 절반의 상금은 남아있어서 청계천 전자상가로 가서 처음으로 중고품 트랜지스터라디오를 하나 샀다. 그 당시 최고 하이테크 제품이었다. 일본제 내쇼날 가정용 트랜지스터라디오는 우리집 최초의 반도체 제품 재산 목록 1호가 되었다. 우리집이 있는 답십리 종점 논길을 걸으면서 기독교 방송에서 훌러나오는 음악을 이 라디오로 들을 수 있는 게 너무도 신기했고 그때의 감격 때문인지 몰라도 1년 뒤 졸업하고 취직 한곳이 바로 금성사(지금의 LG)의 트랜지스터라디오 설계실이 되었다.

하모니카 경연대회에서 1등을 했으면 하모니카협회나 한국의 하모니카 음악계를 위해 봉사를 했어야 했는데 그 뒤 연수차 독일로 떠나면서 한국에서의 하모니카에 관계되는 일에 봉사할 수 없게 되고 말았다. 1962년 서독으로 기술훈련을 받기 위해 60명의 공

광야의 소식

대 출신 기술 훈련생이 비행기를 타고 서독으로 향하게 되었다. 박정희 정부 때 독일이 한국에 베푼 첫 기술원조에 의한 프로그램이었고 파독 광부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1년 전의 일이다.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다. 하늘에서 내려 본 한국의 산은 벌거벗은 산이요 꼬불꼬불한 신작로, 초가집들… 내려다보는 경치에도 가난하고 불쌍한 조국의 모습이 뚜렷했었다. 김포비행장에서 동경까지는 한국 정부(경제 기획원)에서 전세 내어준 대한항공 비행기였다. 전세 비행기이고 보니 기내 분위기가 특이했다. 기내 마이크로를 잡고 스튜어디스가 특별 노래자랑 순서를 진행했다. 친구들의 요청으로 나는 기내 방송 마이크를 잡고 또 하모니카를 불렀다. 비행기 속에서 하모니카 분 괴짜가 나 말고 또 있을까 알아보고 싶다. 그때 비행기 기내에서 하모니카를 불고나자 사회를 보던 스튜어디스가 마이크에 대고 말하기를 “오늘 여러분을 모시고 동경까지 가는 이 비행기는 아시다시피 프로펠러 비행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독일에서 훈련 마치고 오실 때는 제트여객기로 모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라고 인사말 한 것이 기억에 남아있다. 우리 일행은 동경에서 대한항공의 프로펠러 비행기에서 내려 독일정부에서 보내준 전세기로 바꾸어 탔는데 눈이 휘둥그레 해졌다. 그때의 인상으로는 엄청나게 큰 보잉 707제트 여객기였기 때문이었다. 생전 처음 보는 거대한 보잉 707제트기였고 생전 처음 타보는 독일의 Lufthansa 여객기였다.

(다음호에는 ‘독일에서 나의 하모니카’란 제목으로 계속)

2013. 1. 14



사진설명: 1961년 한국에 초청되어 오신 하모니카 솔로이스트 존 세바스찬과 반주자와 하모니카 협회의 여러분. (자료출처: 대한하모니카 협회 카페 <http://cafe.daum.net/harmonica>) 사진 안에 독사진은 미국 내에서 사용 되었던 연주회 포스터 사진. 이분의 연주는 YouTube에서 들어 볼수도 있다. (John Sebastian Sr. Malaguena를 YouTube에서 검색하면 나온다)

동경에서 온 소식

박인배 목사

매년 이맘때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쁘게 온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맞이합니다. 죄인을 구원하려 인간의 몸으로 이땅에 탄생하셨을 때에도 사람들은 구세주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이곳 동경의 풍경은 2000년전의 주님이 탄생하셨을 때와도 별로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세금의 문제가 정치적 혼돈을 야기하고 재난으로 말미암은 후유증과 주변 국가들과의 마찰 그리고 새정권의 우경화가 일본의 장래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의 모습에서 성탄절의 기쁨은 전혀 찾아 볼수없고 구유에 누이신 아기에게 수보다는 산타클로스로 상업화된 장식과 전등불로 도시 이곳저곳이 화려하게 포장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소외되고 길거리의 벼려진 곳에서 오늘도 갈곳없어 몸을 도사리며 추위와 외로움에

눌린 노숙자들에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저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를 돌이켜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6명의 노숙자를 위한 소그룹 지도자를 배출하게 된것과 5개의 소그룹이 동경 여러곳으로 확장된것 그리고 개인전도 훈련으로 수많은 노숙자들에게 일대일 전도로 구원의 열매를 맺게한것들을 말합니다.

이번 겨울엔 50개의 SLEEPING-BAG과 40개의 BLANKET을 나눠줬으며 BLANKET들은 ZAMA 미군부대의 박연수 군목의 도움으로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재정지원을 통해 지난 6년간 한푼의 부족함없이 노숙자 선교를 할수있게 해주심을 아울러 감사드립니다. (저희 선교부에서는 노숙자를 위해 일절 재정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제목:

1. 노숙자들이 추운 겨울의 고달픔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2. 2013년엔 노숙자 소그룹 성경공부가 10개로 확장할 수 있도록!
3. 2013년엔 요요하마와 카와사키에서도 소그룹이 시작되도록!

기쁨이 넘치는 성탄절과 기도가 이루어지는 2013년이 되시기를 축원 드립니다.
박인배 내외드림

Yummi House

雅敎苑

Chinese Cuisine(중화요리 전문식당)

Mon-Sun. 11:00am-9:00pm
1404 Eubank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Phone (505) 271-8700

주전 메뉴

삼선짜장면 \$8.95 / 삼선짬뽕 \$8.95/
해물탕면 \$8.95 / 다섯가지 냉채 \$32.95/
깐풍기, 닭고기 튀김과 마늘소스 \$8.95/
탕수육 \$11.95 / 양장피 잡채 \$17.95



一番

Ichiban
Japanese Restaurant

10701 Corrales Rd NW,
Albuquerque, NM 87114
(505) 899-0095

11:00am to 2:30pm (Mon-Sat) for Lunch
4:30pm to 9:00pm (Sun-Thur) for Dinner
10:00pm on Friday & Saturday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이 난은 거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voiceofnm@gmail.com으로 연락주세요.

알버커키 Albuquerque	공인회계사 CPA MTM Accounting Service 문 만길: 9428 freedom Way NE ABQ, NM 87109 (505-823- 2725)	GEM X Imports 10701 Coors Rd. NW ABQ, NM 87114 (505-899-3420) J-1 Import 4410 Central Ave. SW ABQ, NM 87106 (505- 839- 8697) NEXT Clothes/Gift 4201 Cen- tral Ave. SW ABQ, NM 87105 (505-839-8627)	주택융자 Loan Officer 김미경 Mikyong Kim (Homemortgage) BBVA (Of- fice 505-206-9963) 고산식 Lonnie Ko 7802 Menaul blvd. NE ABQ, NM 87110 (505-332-6663) (cell 505- 379-0433)	사진관 Star Image 6600 Menaul Blvd. C-4 Abq, NM 87110 (505)883-3112
한국식품점 Korean Grocery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5850 Eubank NE, 2270 Wyoming NE, 9411 Coors NE, 1418 Juan Tabo NE, 6124 4th St NW, 1903 Coors SW, 11816 Central SE, 4312 Coors SW, 1649 Bridge SW, ABQ (505-999- 8222)	Stadium Liquor 1306 Brodway SE ABQ, NM (505-242- 8542)	이발소 미장원 Hair Cut Hair & Co(황경희): 5901 Wyoming Blvd., NE (505- 797-8087) Hair Dynamic(Ashley): 1500 Wyoming Blvd. NE (505-296- 2335) Matthew Lee's Hair Style(홍정희): 11901 Menaul NE (505-271-1056)	치과 Dental Clinic Rainbow Dental 8611 Golf Course Rd. NW ABQ, NM 87120 (505-890-6101) Stewart P. Ahn 5920 White- man Dr. NW ABQ, NM 87120 (505-897-6889)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부동산 Realtors 김영신 Yong Shin Kim: Jade Southwest Realtors (505- 321-7695) 수잔리 Susan Lee: Coldwell Banker (505-934-8949) 이준 June Lee: Ready Real Estate (505-730-6178) 최귀분 Gui B. Bonaguidi: The Ingles Company Realtors (505-828-1366)	Nob Hill Barber Shop (Sunny): 3408 Central Ave SE (505-256-0707) Plance Hair Salon(Tina): 4300 Ridgecrest Dr NW (505-907- 9229) Salon 123: 7114 Menaul NE (505-872-0301)	커피 재료 Coffee Moons Coffee & Tea: 1605 Juan Tabo NE, ABQ (505- 271-2633)	리오란초 Rio Rancho
건축/페인트 Painting	세탁소 Dry Cleaners Barbone's Cleaners: 3812 Carlisle Blvd NE (505-881- 4466) Executive Cleaners: 1214 Juan Tabo Blvd. NE ABQ, NM 87107 (505-299-5858)	Kitch Cleaners: 4606 Lomas Blvd. NE (505-255-0642) Laundromate: Wash Brite Laundry 901-A San Pedro SE ABQ, NM 87108 (505-266- 3231)	종교 Church 가톨릭 공동체: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621 Vermont St., NE, ABQ, NM 87110 (505-652-4627) 뉴멕시코 성결교회: 2801 Lomas Blvd. NE, ABQ, NM 87106 (505-238-3551) 샌디아 장로교회: 10704 Paseo Del Norte NE ABQ (505-823- 1678)	한의사 Acupuncture Dr. Chang: 4716 Central Ave SE, ABQ (505-710-7504) Dr. Park: 6501 Eagle Rock Ave, NE Building A #B 87113 (505- 514-2900)
	의류 Clothes Best Outlet: 3300 San Mateo Blvd NE, ABQ (505-884- 2202) Dot Clothing Co: 7200 Mont- gomery NE Suite C, ABQ (505-830-9400)	알버커키 감리교회: 601 Tyler Rd NE Albuquerque (505-803-7716) 알버커키 침례교회: 3315 Tower Rd SW ABQ (505-331- 9584)	화랑 Gallery Park Fine Art Gallery(박영숙): 20 First Galleria Plaza NW, Suite #27 (505-764-1900)	클로비스 Clovis
		주님의 교회: 12120 Copper Ave NE ABQ (505-903-2297)	화원/원예 Nursery Osuna Nursery: 501 Osuna Rd NE, ABQ (505-345-6644)	종교 Church 클로비스 순복음 교회 Gospel Clovis Full Korean: 405 N. Connelly St, Clovis 88101 (575-762-4510)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이 난은 거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voiceofnm@gmail.com으로 연락주세요.

로스 알라모스 Los Alamos

건강식품 Health Food

인성내츄럴: Los Alamos (505-662-9681)

종교 Church
산타페 한인교회: 310 Rover Blvd, Los Alamos (505-412-5420)

산타페 Santa Fe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Maki Yaki: 3003 S. St. Francis Dr., #C, Santa Fe (505-820-1930)

Chopstix Oriental Food: 238 N. Guadalupe St., Santa Fe (505-820-2126)

Osaka (Traditional Japanese Grill): 3501 Zafarano Dr. Santa Fe, NM 87507 (505-471-6698)

종교 Church

New Beginning Church 480A County Rd. 84 Santa Fe, NM 87506 (505-577-4572) (cell 505-577-4572)

겔럽 Gallup

신발 Shoes

모텔 Hotel/Motel

라스크루세스 Las Cruces

공인회계사 ACC

Kelly Tax and Accounting Services: 2131 N main st, Las Cruces, NM 88001 (575-523-5800) (Fax 575-523-7700)

카페/ 선물 Cafe/Gift

Big Chair Cafe & gift shop: 2701 W Picacho Ave, Las Cruces, NM 88007 (575-527-0098)

병원 Clinic

Esther Patterson: URGENT CARE, Covenant Clinics, 3961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56-0200)

종교 Church

라스크루세스 침례교회: 1441 East Mesa Las Cruces NM 88001 (915-276-2773)

화밍تون Farmington

종교 Church

화밍تون 침례교회: 511 W. Arrington, Farmington (505-453-5461)

가게 Store

Kim's Imports: 3030 E. Main Street, Suite 2, Farmington, 87402 (505-327-7167)

골프 레슨

Greg Lee (505) 681-9277

- Professional Golfer Career College business 졸업
- Professional Golfer Career College master program 졸업
- Wally Armstrong golf teaching license
- 안동 과학 대학 골프 강의
- 대구 유성스포츠 헤드 프로

1회 레슨(60분) \$60, 3회 레슨(매회 60분) \$150

장소: Golf Training Center in Balloon Fiesta park Arroyo Del Oso golf course

BBVA COMPASS

**뉴멕시코 주에서 은행 대출이 필요하십니까?
한국말을 하는 김미경씨를 만나보세요.**

Think getting a mortgage should be easy? So do we.

Here's an overview of what we can offer you:

- * Professional Program financing up to \$1 million with low down payment for Doctors, Dentists, CPAs and Attorneys.
- * First Time Home Buyer Program make no payment for 3 month, low down payment, and pay no origination or other lender fees
- * Government Loans FHA and VA loans
- * Construction Loans OneConstruction/Perm, Renovation/Perm and Lot Loans
- * Primary residence and second home financing, including noncondos (no condotels)
- * Variety of repayment terms available
- * Super Jumbos financing available up to \$5 million
- * Foreign Nationals (nonresidents) financing available up to \$1 million USD on single family residences and condominiums'
- * Convenience apply online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In addition to simplicity and options, at BBVA Compass you'll get competitive rates and outstanding service. So whether you're buying your first or fifth home, getting your next mortgage will be easier than you ever imagined at BBVA Compass.

Mi Kyong Kim Mortgage Banking Officer

전화번호 505-206-9963

mikyong.kim@bbvacompass.com

www.bbvacompass.com/mortgages/mkim

NMLS# 512561

HUONG THAO

Vietnamese Cuisine

Lunch & Dinner • Beer & Wine

Tues - Sat 11:00am - 9:30pm • Sun 11:00am - 8:30pm

1016 B. Juan Tabo NE
Albuq., NM 87112 • (505) 292-8222



Choices: pork, shrimp, chicken, beef, \$11.25 or any combo for \$11.95
Extra large add \$3.95 Extra noodles \$2.25 Extra Meat 2.95



Sushi & Sake

5901 Wyoming Blvd. NE
Albuquerque, NM 87109

phone (505) 797-8000
fax (505) 797-4090

Lunch
11:00-2:00 Mon-Sat

Dinner
4:30-9:00 Mon-Thur
4:30-9:30 Fri-Sat

12:30-8:00 Sunday



Everything You
Need for
Oriental Food



A-1
한국식품점

(505)-275-9021
1410 Wyoming NE
Albuquerque NM 98112



Mon~Sat
10:00~6:00
Sunday
close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New Mexico



뉴멕시코주 한인회

9607 Menaul Blvd., NE
Albuquerque, NM 871313
(505) 271-1777 www.kaanm.com

Attach Stamp
우표를 붙인 후
반을 접어서 발송

To: